

강진 전라병영성 복원 눈앞에

국비 2년 연속 30억 이상 확보…15년 만에 내년 하반기 완료

사적 397호인 강진 전라병영성이 1999년 복원을 시작한 지 15년 만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3일 강진군에 따르면 그동안 성 내부 토지매입과 건물 이전, 열악한 국비 지원 등의 문제로 복원 사업이 지지부진 했으나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국비 30억원 이상을 확보함에 따라 복원 속도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강진군은 지금까지 성곽은 1060m 중 작업로를 제외한 1053m의 복원을 마친 상태로 4개 문루 가운데 남문, 동문, 서문 등 3개소의 작업을 끝냈다.

현재는 성과 상단의 성가퀴(성 위에 낮게 쌓은 담. 몸을 숨기고 적을 감시하거나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를 복원중이며 북문은 올해 말 착공해 내년 하반기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성 내부 건물지 복원의 학술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12년에 성 내부 북서측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역사적·학술적으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은 문화재청과 함께 이달 중 순부터 성 내부 북동측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성 내부 남측에 대한 발굴조사를 마칠 계획으로 조사가 끝나면 전라병영성 내부 건물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성 내부 건물지 및 성 외부 해자(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밖의 물레를 감싼 도량)의 복원과 주변 정비를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관아 시설인 동헌(東軒), 내아(內衙) 악사(客舍), 군영(軍營) 등 병영 내부의



복원을 마친 전라병영성의 남문과 진남루.

저 역사적·학술적으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라병영성이 복원되면 옛 병영 생활에 대한 체험과 역사교육의 장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육군본부와 협조를 통해 육군의 정신교육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전라병영성은 조선시대 전라도 육군 훈련과 지휘부 기능을 담당한 사령부가 있던 군사 요충지로 현존하는 국내 병영 중 유적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조선시대 병영으로는 유일하게 네모꼴 성곽을 갖췄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산악자전거 마니아들 '힘찬 질주'

금성산 전국 산악자전거대회가 3일 오전 나주 금성산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40km 크로스컨트리 개인전에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경남도 해상경계 법적분쟁 마무리

창원지법 “해상간 도계 침범은 불법”…경남 어민들 ‘도계 인정 1심 불복’ 항소 기각

전남도와 경남도 간 해상 경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제3형사합의부는 경남지역 기선권현망 어민들이 해상 경계를 인정한 1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했다. 이 재판은 멀치 잡이 어선인 기선권현망 어선 19개 선단 어민 33명이 도계(道界)를 넘어 전남지역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수산

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진행된 항소심 재판이다.

이

가운데

광주지법은 항소심 3건

에 대해 지난해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 경계는 존재한다’며 도계를 침범해 조업한 경남측 선주와 어민에게 100만~200만원 벌금을 선고한 1심

을 받아들였다.

이에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인 순천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는 1948년 8월15일 당시 존재하

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법리적용의 적법성 여부만 따지는 대법원의 상고 가능성도 낮아 사실상 종결됐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항소심에서 경남 측의 조업구역 침범이 인정됨에 따라 바다 경계를 둘러싼 양 지역간 분쟁도 상당 부분 수그려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척의 대형 어선이 그물을 끌며 멀치를 잡는 방식인 기선권현망 선단은 전남은 14개, 경남은 54개가 조업 중이며 어선 규모나 기업화 측면에서도 경남이 전남보다 크게 앞서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목포 옥암지구 택지 등 25필지 분양

목포시는 옥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 일반상업용지, 준주거용지, 주차장용지 등 총 25필지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용지는 옥암동 애항초등학교 인근 3필지, 690.9㎡(209평)로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이 부지는 단독주택 또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용도로 건축할 수 있어 실수요자에게 인기가 많다.

4일부터 10일 간 목포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오후 추첨한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건너편 큰 도로변 일반상업용지 9필지, 아델리움아파트 맞은편 제1종 전용 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용지 10필지 등 22필지는 신청 즉시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옥암지구는 목포대교 및 목포~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고 목포발전을 이끌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옥암지구 총 816필지, 118만1051.3㎡ 가운데 현재 777필지, 88만9210㎡ 가 팔려 95%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고흥·영암·해남 3곳 순환수렵장 내년 2월까지 운영

전남도는 고흥, 영암, 해남 등 3개 군 지역에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순환수렵장이 운영된다 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수렵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구역 등 수렵 제한지역을 제외한 1422㎢(고흥 682㎢, 영암 370㎢, 해남 370㎢)다.

수렵 가능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꿩, 멧비둘기, 참새, 까치, 까마귀, 청설모 등 17종이다. 멧돼지, 고라니, 토끼는 사냥기간 중 1인당 3마리만 잡을 수 있다.

최대 수렵 허용 인원은 고흥 2274명, 영암 1236명, 해남 1820명 등 5330명이다. 수렵을 하려면 수렵장 입장권, 포획 야생동물 태그(TAG)를 사야 한다. 수렵장을 운영하는 군에서는 수렵 기간 중 배상책임보험가입과 함께 운영 전담반을 구성해 수렵활동을 안내한다.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모집한 단속반 300여명을 투입, 겨울철 야생동물 불법 수렵과 밀거래 등을 학동단속할 계획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멸민의회 멸민의정 소통과 신뢰속에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풍미인 쇼핑몰

EVENT 매주 금요특가



생 산 적 인
시 민 중 심 의
정 책 개 발 을 위 한
생 활 중 심 의
자 치 의 정
소 통 의 정
전 문 의 정
현 장 의 정

정 읍 시 의 회
www.jcc.or.kr